

한국언어정보학회 소 식 제 17 호 (1998년 12월)

KSLI Newsletter (Korean Society for Language and Information) No. 17, December 1998

449-791 경기도 용인시 모현면 왕산리 산 89 한국외국어대학교 인문대학 언어학과 내
전화: 0335-330-4293/4286 전송: 0335-330-4074 e-mail: hrchae@maincc.hufs.ac.kr

㉔ 본 학회 12월 12일 모임과 “경희 언어학 집담회” 안내

이번 학기의 마지막 발표 모임이 12월 12일 (토요일)에 평소와 마찬가지로 대우재단빌딩 세미나실에서 오전 9시 30분부터 열립니다. 특히 이번 모임은 현 집행부가 준비하는 마지막 모임입니다.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날 오후에는 “경희 언어학 집담회”가 아래와 같이 개최됩니다 (대한언어학회 HPSG 연구회와 공동 개최).

발표자: 유은정 (서울대)

제목: “HPSG Approach to Wh-Scoping in English Constituent Questions”

시간: 12월 12일 (토요일) 오후 3시 30분

장소: 경희대학교 국제교육원

집담회가 끝나 후 “HPSG 연구의 활성화”에 대한 자유 토론도 있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㉔ 학회 홈페이지 작성 작업 진행 중

우리 학회는 연구개발정보센터 학회 정보화 사업의 지원을 받아 홈페이지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학회의 기본 정보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본 학회와 관련되어 발행된 출판물의 전체 내용을 대부분 그대로 실을 예정입니다. 여기에는 우리 학회의 전신인 “서울형식문법이론연구회”와 일본의 “Logico-Linguistic Society of Japan”에 의한 공동 학회의 결과로 출판된 시리즈와 최근에 아시아 지역으로 확대되어 운영되고 있는 학회의 학회지 PACLIC 시리즈 (*Language, Information and Computation*)도 포함됩니다. 여러분들의 연구활동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기 대해 주십시오.

㉔ 회원 가입 및 회비 납부 안내

본 학회에 회원으로 가입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총무에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학기당 회비는 일반 회원이 15,000원이며 학생 회원은 3,000원입니다. 회비는 발표회 모임에서 직접 내시든지 은행 계좌로 간사에게 송금해 주시면 됩니다 (예금주: 이하원, 계좌번호: 132-20-202434, 제일은행 한국외국어대 지점).

㉔ 12월 12일 모임 발표자의 논문 초록

한국어 영조용사의 선행사 탐색에 대한 연구

이익환/이민행 (연세대)

Vallduvi (1990, 1994)에 의해 제안된 정보포장 이론 (Information Packaging Theory)은 정보구조의 의미화론적인 분석에 적합한 담화이론으로 크게 주목받고 있다. 이익환/이민행 (1998)에서는 “정보포장 이론”을 이론적인

토대로 삼아, “다리현상 (bridging phenomena)”과 “총칭명제 (generic proposition)” 등 몇 가지 언어현상을 기술하는 데에 전통적인 정보포장 이론이 한계를 보인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극복할 수 있는 여러 방안의 하나로서, 서류카드 (file card)의 구조가, 70년대 이래 인공지능 분야에서 심도 있게 논의되어 온 프레임 (frame) 구조로 이해되어야 한다는 점과 서류카드 유형을 타입유형과 토큰유형으로 구분해야 한다는 점을 논증했다. 그리고 수정된 서류카드의 구조를 기반으로 하여, “확대 정보포장 이론” (Extended Information Packaging Theory, EIPT)이라는 새로운 인지적 언어정보 처리 모형을 제안했다.

한국어의 담화에 빈번히 나타나는 영조응사의 사용은 문장의 정보 구조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따라서 영조응사의 선행사를 탐색하는 데 있어, 확대 정보포장 이론이 유용한 이론적인 바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이론이 한국어 담화의 영조응사의 선행사를 찾아내는 데 있어서도 타당한지에 대한 본격적인 검토가 지금까지 없었다. 이 발표에서는 확대 정보포장 이론이 한국어 호텔예약 대화에서 영조응사의 선행사 탐색에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구체적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참고문헌

김미영 (1994), 한국어 담화의 중심화.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박철우 (1998), 한국어 정보구조에서의 화제와 초점,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이익환, 이민행 (1998). “지시적 표현과 정보구조의 해석을 위한 인지적 모형,” 언어 23.1, 65-85.
 정소우 (1998), “정보포장이론에 따른 열차 예약 시스템 연구,” 정국 외. 음성언어 시스템 개발을 위한 한국어의 운율구조 및 담화구조 연구. 한국통신 1998년도 연구보고서.
 최재웅, 이민행 (1999). “초점,” 한국언어학회 특강시리즈: 현대의미론과 한국어기술, 3-51. 한신문화사. (출간예정)
 Brady, M. & R. Berwick (eds.) (1982). *Computational Models of Discourse*. MIT-Press: Cambridge, Mass.
 Brennan et. al. (1987). “A Centering approach to pronoun,” In *Proc. 25th Annual Meeting of the ACL*, Stanford, 155-162.
 Cormack, S. H. (1992). *Focus and Discourse Representation Theory*. Ph.D Thesis, University of Edinburgh.
 Grosz et. al. (1995). “Centering: A Framework for Modeling the Local Coherence of Discourse,” In *Computational Linguistics*, 203-225.
 Vallduvi, E. (1990). *The informational component*. Diss. University of Pennsylvania.
 Vallduvi, E. (1994). “Updates, Files, and Focus-Ground”, In Bosch et. al. (eds.) *Proceedings of a conference in celebration of the 10th anniversary of the Journal of Semantics*. 649-658.

장소/시간 부사어와 -을/을 표지 채희락 (한국외대)

일부의 동사는 [명사 + 후치사]로 구성된 부사어뿐만 아니라 [명사 + 을/을] 부사어와도 결합할 수 있다. 이런 교체를 보이는 부사어 중 장소 부사어는 주로 이동동사류 (오다, 가다; 걷다, 뛰다)와 결합하고 (1) 시간 부사어는 다른 종류의 동사와도 결합한다 (2).

- (1) 가. 학교-를 갔다 (cf. 학교-에). 나. 운동장-을 걸었다 (cf. 운동장-에서).
- (2) 가. 사흘-을 왔다. 나. 사흘-을 놀았다. 다. 사흘-을 굶었다.

예를 들어, (1나)에서 운동장-에서와 비교해 보았을 때 운동장-을의 (보충어인지 부가어인지의) 지위에 변화가 생기는지 그리고 그에 따라 해당 동사의 논항구조에 변화가 생기지는지가 논의의 초점이 된다. 크게 나누어, -을/을을 대격 표지로 보아 동사 자체가 자동사에서 타동사로 바뀌는 것으로 분석하는 통사적 접근 방법 (Kang 1986)과 -을/을을 대격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으로 분석하는 의미적/화용적 접근 방법 (홍기선 1995)이 있다. 저자의 분석은 -을/을이 대격표지와 특소조사의 기능을 가지는 중의적 표현이며 위의 예에 나오는 것은 모두 특수조사라는 입장 (채희락 1996)에서 두 번째 부류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기존의 분석과는 달리 특수조사 -을/흠이 부사어의 보충어/부가어 지위와 동사의 의미 변화에 아무런 영향도 끼치지 않으며 모든 의미/화용적 차이는 -을/흠 자체의 특성에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참고문헌

- 채희락 (1996) “한국어의 명사류와 범범주 ‘소단위어,’” 언어학 언어학 22, 한국외국어대학교 언어연구소.
홍기선 (1995) “이동동사와 장소명사 표지,” 어학연구 31.3, 서울대학교 어학연구소.
Kang, Young Se (1991) “Adverbial Nominals’ Case Is Well Explained by the Generalized Case Marking Principle,” *Harvard Studies in Korean Linguistics* IV.

한국어 부정극어 종류에 대한 재고

이예식 · 강보영 (경북대학교)

본 발표에서는 Zwarts (1993)의 대수적 특성에 기초하여 그 종류를 구분해 보면 한국어 부정극어는 Strong NPI 한 종류만이 존재함을 보이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우선 선행연구를 살펴 본다. 이에 대한 논의로, Nam (1994)은 NPI ‘아무 N도’와 ‘NP밖에’를 순수한 부정구문에만 허용된다고 하여 Strongest NPI라고 주장하였으나, 최진영 외 (1998)에서는 이들이 부정 함축술어, 조건절, before-절과 같은 anti-additive한 환경에 나타날 수 있음을 보이면서 Nam (1996)의 주장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그러나 최진영 외 (1998)는 위와 같은 언어적 환경들이 anti-morphic한 대수적 특성을 만족시키지 못 함을 엄격한 방법 (a rigorous way)으로 보이지 않고 있다. 첫째, 한국어에서 부정극어를 허용하는 환경은 anti-morphic하지 않지만 anti-additive함을 증명하고자 한다. 이는 한국어 NPI는 모두 strong NPI임을 보이는 가장 강력한 객관적인 증거라 할 수 있다. 둘째, 한국어의 부정극어는 모든 NPI들은 inherent focus를 가지는데 (손형숙 1998), 이는 대부분의 NPI들은 ‘-도’라는 접사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에 근거하여 강조 초점임을 보이고자 한다. 셋째, 이 강조 초점, Strong NPI와 그 환경 (anti-additive context) 사이에 어떤 유의미한 관계가 있는지를 보이고자 한다 (이와 유사한 논의는 이예식 (1998), Krifka (1995) 등이 있다).

Selected References

- [1] Choi, Jinyoung and Lee, Chungmin. 1998. The Licensing Contexts and Meaning of the NPI *te isang*. *Language and Information*.
[2] Krifka, M. 1995. The Semantics and Pragmatics of Polarity Items. *Linguistics Analysis* 25:209-257.
[3] Lee, Y.-S. 1998. Types of Polarity Items and Emphatic Expression. *Journal of Language Sciences*, Vol. 3:125-148.
[4] Nam, S. 1994. Another Type of Negative Polarity Item, in M. Kanazawa and C. Pino (eds.) *Dynamics, Polarity and Quantification*. Stanford: CSLI
[5] Sohn, Hyang-Sook. 1998. Inherent Focalizers and Phrasing in North Kyungsang Korea. read at Conell University.
[6] Zwarts, F. 1993. Three types of polarity. To appear in F. Hamm and E. Hinrichs (eds), *Semantics*.

☐ 1998학년도 2학기 연구 발표회 계획 (한국언어정보학회): 제 37호

일시: 9/19, 10/17, 11/14, 12/12 (토) 9:30 a.m.

장소: 대우재단 빌딩 (서울역 앞 대우 빌딩 뒤) 세미나실

발표 시간: 기획 논문/강의--50분, 일반 논문--30분

9월 19일 (토), 9:30 a.m.

- 기획: 박병수/김중복 (경희대) “Korean Relative Clause Constructions and an HPSG Analysis”
기획: 신자영 (서울대) “Morphology and Semantics of Spanish Change of State Verbs”
일반: 노용균 (충남대) “한국어 자원문법 구축의 실제”
일반: 최재웅 (고려대) “한국어 특수조사 ‘-만’의 의미”

10월 17일 (토), 9:30 a.m.

- 기획: 김수연 (이화여대) “Can We Compute the Preference in Anaphor Resolution:
A Theoretical Approach”
기획: 류병래 (ETRI) “HPSG의 의미역이론과 연결이론”
일반: 염재일 (연세대) “Modality in Dynamic Semantics”
일반: 성원경 (Applications Technology, Inc.) “말뭉치 사용자 모델링에 기반한 지능형 대화 모델 (MALBUT:
An Intelligent Dialogue Model Using User Modeling)”

11월 14일 (토), 9:30 a.m.

- 기획: 이해운 (서울대) “A Default Inheritance Approach to VP-ellipsis”
기획: 김종현 (서울대) “한국어의 메아리 질문”
일반: 노은주 (런던대 (UCL)) “Echo Questions: Metarepresentation and Pragmatic Enrichment
(반향 의문문: 상위표상과 화용적 의미보강)”
일반: 이영현 (조선대) “제2 서술어로서 [게]구조”

12월 12일 (토), 9:30 a.m.

- 일반: 이익환/이민행 (연세대) “한국어 영조응사의 선행사 탐색에 대한 연구--
확대 정보포장이론에 의한 접근”
일반: 채희락 (한국외대) “장소/시간 부사어와 -음/을 표지”
일반: 이예식/강보영 (경북대) “한국어 부정극어 종류에 대한 재고”

대우재단 빌딩의 주차장이 협소하고 주차권 발급이 한정되어 있사오니 (5매), 가급적 대중 교통 수단을 이용하여 주십시오.

발표 및 휴식 시간을 지킬 수 있도록 발표자와 참석자들께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표자가 OHP 사용을 원할 경우 총무에게 미리 알려 주십시오.